

VOGUE

KOREA

living



home & away

전 세계 패션, 뷰티, 문화계 인물 28인의 '드림 하우스'

in partnership with



FAMILY

MUSEUM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예술 가문인 포르나세티. 3대에 살고 있는 빌라노의 포르나세티 저택은 가문의 모든 것이 응축된 살아 숨쉬는 작은 박물관이다. 재미 있는 이름과 이야기를 지닌 그 공간들을 둘러보는 순간, 포르나세티 특유의 유머와 재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 수 있다.
PHOTOGRAPHY ALESSANDRO FERRARI



많은 사람들이 7-8세대는 노년 집으로 한산한 공간이 많지만, 다산한 집안들을 살펴보자 멋진 인테리어 소품이 보인다. 나라가 생애의 생애는 정말이 표현은 포르나세티의 그림들이 안에 들어 있다. 어떻게 해서도 모이든 거울들로 장식한 소품 및, 아티스트의 아들 용감한 표현의 재치가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으로도 시간이 훌쩍 지나고,





서울의 10 코르소 코르소 파리의 레클레어를 비롯해 유럽 현대미술이나 가구술에서 특히 연으로 그려진 여자 얼굴들이 프란체스코 퀴트 남자는 현대적이어서 소용돌이를 볼 적 있는가? 바로 이탈리아의 대표적 예술 거장인 포르나제티 (Forzetti)의 작품들이다. 이탈리아 특유의 재치가 느껴지는 수많은 디자인을 선M데온 포르나제티 거장의 지향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 아버지 파바로 포르나제티의 뒤를 이어 브란드를 이끌고 있는 바우비 포르나제티 (Barbara Forzetti)가 10 코르소 코르소의 주선으로 <모그 코리아>를 초대했다.

포르나제티 거장의 재능은 일러노 피델라 역 부근 클라리움 차나 작은 골목에 있다. 주변 건물들이 곧사 중아라 조금 어수선했지만, 입구에 들어서자 전혀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초록의 동그란 작은 정원은 오래된 집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편안함 분위기가 감동했다. 불투명한 유리에 그려진 중년 남자 그림과 '포르나제티'라고 적힌 하얀 테두리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노란 벽이 눈에 들어왔다. 밖에는 1800년대에는 무녀를 그린 그림이 장난 같게 있었고, 오른쪽에는 오래된 과학실에서나 볼법한 나무 서랍장이, 그리고 안에는 포르나제티의 작품들이 스승인 캄프와 스키프 등이 들어 있었다. 그 위로 우리에게 익숙한 포르나제티의 그릇, 잔, 책 등이 유리장 안에 진열되어 있었다. 정신없이 둘러보고 있자니, 바우비 포르나제티가 친절하게 모으며 인사를 건넸다. "할아버지 파바로 포르나제티부터 아버지, 그리고 차까지 3대에 살고 있는 집이라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을 거예요. 집안 무스카니 지방에 살았을 때를 제외하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내 이곳에서 살았죠."

1900년생인 바우비 포르나제티는 브레라 파란 에르 스쿨을 다닌 후, 텍스처와 디자인과 매거진 프로젝트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1974년 무스카니의 농장을 개조하기 위해 파바로, 1980년 다시 밀라노로 돌아와 아버지를 도와 디자인 작업과 제품 개발을 시작했다. "이 집도 생애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죠." 포르나제티는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말했다. "너무 오래된 집이라 건축적인 가치는 별로 없지만, 오래 걸려 내려오는 포르나제티 거장의 예술 작품이 소장된 작은 박물관이자 소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할아버지 때와는 분



바우비와 그의 공간들이 어떤 다양한 행동을 가능하게 할지 기대해본다. '빨간 방'에는 책이 가득 차 있는 물론, 바우비와 그의 아내 소용돌이 안을 발견했다. 포르나제티 코르소가 아버지 작품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완성된 작업실에는 과거의 잔해, 미완이 공존한다. 다양한 열정이 표현된 다양한 완성된 화상, 노란 및 핑거링에 놓인 빨간 코르소에서 바우비 포르나제티의 위아 감동이 느껴진다.

2층 거실의 왼쪽 벽면 바니
 포르나세티가 모은 LP와 CD를 거
 세워두고, 다른 한쪽 벽면 아치
 모양의 모이는 책으로 가득하다.
 포르나세티는 책장을 바니에
 부딪힌 듯 미소를 지었다. 바니 벽에
 포르나세티 특유의 자일로 장식된
 포타의 흔적 같은 화살표.



당 다르지만 포르나세티의 요리저널리스트에 충실한 작업에 열두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르
 나세티는 30년대 아버지 시대를 현상에 디자인을 개발했던 방식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
 어요." 알라노의 최가이자 조카이자 인플루언서를 비롯한 수많은 예술 작업생전에 1만 장이
 넘는 작품을 남겼음을 썼던 아버지 외에도 포르나세티가 100년 세상을 바란 후, 그는 포르
 나세티 거리의 거실을 정적으로 재구성해 하였다. 그는 아이코닉한 작품들을 현대화시켜,
 카미요를 비롯한 거구 제시는 물론 자신계에서도 러브콜을 보내는 알라노의 대표적 예술가가
 되었다. 그 결과 패션, 벽지, 러그, 의자 등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아이템이 탄생할 수 있었다.
 한편 문으로 난 직고 좁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자 바니와 포르나세티의 거실이 나왔
 다. 그는 LP와 CD를 모으는 것이 취미이며 디렉션을 즐긴다. 거실 왼쪽엔 '카메라 델라 로사
 Camera Della Rossa' 아트워크로 '별간 밤' 편 이름의 게스트룸이 있었다. 거구는 물론 작
 은 책장에 꽂아 있는 책까지 모두가 별간 밤 방에서나와 거실 반대편으로 가면 포르나세티의
 아카이브라고 부를 만한 방이 있다. 이 방의 이름은 '카메라 델라 갈라 Camera Della Galia'
 '5관색 밤', 나비, 달, 꽃, 과일, 타이포그래피 등 포르나세티에게 영감을 주는 아카이브 자료
 들을 주재료로 반호를 해어 분홍색 책장에 꽂아놓은 곳이다. 앞뒤 벽면 장식되지 않은 것처럼
 튀어나와서 바니와 포르나세티에게 아주 익숙한 듯 보였다. "다저인 작업을 하기 전에는
 꼭 이곳에 와서 리서치를 하곤 하죠." 책장에는 수많은 책과 소품들이 놓여 있고, 그 옆으로
 포르나세티의 작업 테이블이 있었다. 또 해상 맞은편에는 별간 피아노가 놓여 있었는데, 그간
 '카메라 델라 로사'에 앉아서彈법했다.
 2층에서 내려와 현관문이 있는 작은 복도에서 왼쪽으로 향하니 별간 계단이 걸린 또 다른 2층
 으로 가는 계단이 나왔다. 계단을 올라가니 저층에 노란의 그림이 프린트된 벽지로 사장을 뒤
 덮은 공간이 나왔는데, 그이탈로 포르나세티의 아카이브인 책장이 남겨 놓은 곳이었다. 무
 선 오른쪽 첫 번째 작은 방에는 모든 천장에 나비가 그려져 있었는데, 하얀 타일엔 포르나세
 티 그림이 프린트된 트럼프 카드 같은 휘장상이 달려 있었고, 그 옆으로는 '카메라 델라 베네
 Camera Del Fesca: '별고기의 밤'이라는 뜻' 한 거울을 이름의 또 다른 게스트룸이 있었다.
 물고기 커튼이 중앙에 걸려 있고 물고기 스탠드인 액자들이 걸려 있어 마치 바니속에 온 듯
 한 느낌 물고기 방을 차우니 또 다른 게스트룸인 온통 갈색으로 칠한 거울과 칠대까지 안락
 한 방이 나왔다. 방엔 커다란 정물 두 개가 있었는데, 뿔뿔이 골짜기 구멍이 이 집에서 가장 오래
 된 포르나세티 사일링을 비추자 눈(눈으로 분위기까지 느껴졌다. 미로처럼 흥미로운 구조의 2
 층에서 내려와 계단 오른쪽으로 가면 다시 작은 복도가 나오는데, 복도 왼쪽에는 포르나세티
 그림이 스탠드인 불매 타일과 레갈 세컨대가 어울려 유난히 모던한 분위기를 풍기는 흑백 화
 장상이 있고, 휘장상을 나와 복도 두 번째 문을 열면 아반트 빌 바니 초록 벽에 아티 오양의 거
 울을 달아놓은 '게울의 방'이 나온다. 다방의 생채문 문을 열 때마다 흥미진진한 모양이 펼쳐
 지는 포르나세티의 세계!
 작은 복도 끝에 있는 다이닝룸도 흥미진진하리 대만까지 커다란 통창 너머로 동그란 작은 정





같이 보이는 이곳은 사랑에서 빛이 들어와 희안 백과 희안 타일이 없던 비
 님에 스텝프린트 색채의 나비들이 금강아리도 하얀 구름 위로 날아오를 듯했
 다. 오색 나비들이 일상이 남몰래처럼 프란티와 있는 심리제를 읽어 보
 에스프레소 진, 유자 진, 그로들이 차곡차곡 정돈되어 있었다. 주방엔 구석
 구석 나비가 빠지지 않고 장식되어 있었다. 왼쪽 벽에는 80여종 포른-나
 비가 나비 제집 거가 아가씨를 그린 1900년대 중반의 그림이 있고, 테이블
 과 의자, 스탠드에도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다. '나비의 날'에 와 있는 뜻밖
 기분이랄까? "주방 난로 위에 있는 리옹아트리세(Lyonnais) 거울은 이
 집에서 가장 세기이예요, 요즘 재물들을 기본으로 새로운 아티클을 만드는
 작업을 연구 중이랍니다. 오래된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작
 품 활동에 중요한 컨셉이 될 겁니다."

포른 살고 있는 빌라노의 오래된 집에서 거문의 전통을 살리면서 새로운
 직업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후-나 포른-나비, 하지만 정작 그는
 그 직업을 빌라노 같은 대도시와는 정반대되는 사골이라고 표현했다. 그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 아디스나 향긋한 내용이 나면서 불날의 꽃말과 나비
 들이 어울리는 풍경이 떠올랐다. "유나이티드 퍼플(United Perfumes)의
 조향사인 올리비에 폴라(Olivier Poige)와 함께 콜라보레이션 해서 만든
 향이랍니다. 캐리향과 오렌스-라벤-사사우드 향이 어울렸는데, 계절이
 나 날씩, 날씨 상관없이 모두가 좋아할 만한 자연의 향입니다." 그는 자신
 의 집에 그동안의 작업과 활자, 공상사 등 모든 것을 모아놓았다. "천이 집
 에서 늘 새로운 감동과 영감을 받곤 합니다. 집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은 미
 지인성의 무대 세트를 짓는 것과 같죠, 건 여왕이라고 해도 좋구요."
 에나디 / 김은서 현서 경명 / 김수현(Osana Kim, 빌라노-포른)



포른-나비 제집 모든 것은 빛
 색이 생략되지, 동시에 연하다.
 양의 몸도 가루로 무어진 거,
 불고기 프란티와 제그 몸으로 거둔
 '물고기 날', 다량인 연과 모든
 색깔이 물어는 잠시 스물들이
 꽃말에 놓인 '노란 날', 그리고 늘
 주방 앞만 바쳐서 바비, 피자,
 스탠드 모든 것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나비의 날'이 있다.